

이재명, 영호남 ‘이순신 호국벨트’ 훑으며 표심 공략

6·3 대선 D-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과 전남을 잇는 이른바 ‘이순신 호국벨트’를 찾아 표몰이에 나섰다.

▶관련기사 3·4면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3일째인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하고, 다음 날에는 영호남의 경계인 화개장터를 거쳐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잇따라 찾는다.

이들간 임진왜란 당시의 남해안 전투 지역을 동에서 서로 훑으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로 명명했다.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 유세’의 시작과 끝이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목포여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배출한 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을 찾아 ‘위기 극복 총사령관의 각오’를 다지고 통합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 구도를 깨고 대세론을 굳히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세의 세부 일정에도 이같은 전략이 묻어난다.

이 후보는 ‘이순신 호국벨트’ 유세 첫날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용사가 잠든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하며 부산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부산·창원·통영·거제 이어서 화개장터 거쳐 여수·목포 이동 YS·DJ 정치고향서 시작과 끝 “위기극복·통합 총사령관 각오”

한다”며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닌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맞나”라며 “이번에도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남으로 이동하며 김태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동남권의 성장 전략이기도 한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 유튜브 라이브 대담을 하며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라이브 대담에서 “북극항로 개척에 제일 중요한 건 외교관계”라며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야 하고, 개척을 주도하려면 대미, 대러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경남 창원 상남 분수광장을 거쳐 거북선이 있는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을 방문한 뒤 YS의 고향인 거제 시내를 찾아 조선·해양 산업, 동남권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튿날인 15일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하동 화개장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청년들과 마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14일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앉아 일지라와 주거,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창단한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구장을 방문, 철강과 물류, 해운 산업 경쟁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다음 행선지는 임진왜란 최후 격전지였던 여수 이순신광장이다. 이곳에서 해양 주권 수호의

지를 강조한 뒤 순천과 목포에서 유세를 마친다. 이 후보의 전남 일정에는 지역 의원들도 동행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YS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거제서 시작해 이튿날 대장정을 서남해안의 관문이자 DJ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서 마무

리한다”며 “부산에서 경남, 전라도까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진다는 게 이번 유세의 콘셉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국난 극복 의지를 되새기고 동남권과 호남권의 발전,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도 담긴 일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 기자

“광주의 매력 만끽”... ‘G-페스타’ 봄시즌 스타트

내달 8일까지 11개 축제·행사

광주 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가 봄시즌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광주시는 14일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G-페스타 광주를 다음달까지 2개의 테마로 구성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 11개 축제·행사로 구성된 G-페스타 광

주는 ‘오월광주’ 테마와 ‘열정×익사이팅’ 테마로 구분해 운영한다.

‘오월광주’는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개의 축제·행사가 펼쳐진다.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세계 인권도시포럼은 ‘평화와 연대-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행사는 민주평화대행진과 시민난장 등 전야행사와 오월강연대회,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광주 시민의 날인 24일에는 시청 일원에서 기념식, 상투게더, 워터슬라이딩, 정책평가박람회 등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민주·인권·평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AI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토론 및 토크콘서트인 광주국제인문위크도 오는 28~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두 번째 테마인 ‘열정×익사이팅’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개의 축제·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호남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시회인 광주식품대전과 커피 등 차와 디저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티엔캐페쇼, 전 세계 다양한 주류 시음 및 구매 등 직접 마셔보고 즐기는 광주주류관광페스타 등 총 3개의 대규모 박람회가 오는 29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스트리트댄스 흥행몰이 1번지 광주스트릿컬처페스타는 다음달 5~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축제·행사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오월 스텝프투어를 운영해 참여한 분들께 광주관광기념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스텝프투어 및 봄시즌 축제·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G-페스타 광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현 기자

45주년 전남5·18민중항쟁 기념행사

Ah May, The May We Meet Again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기념식

5월 16일(금) 10:30 전남도청

문화제

5월 17일(토) 12:00 목포역 광장

전남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전라남도